

산문집

어머님의

사랑

최동일 저

오늘도 저는 어머님의 기억속에 열여섯살의
막둥이로 남아있는것입니까? 저는 어머님을 떠올리면
또다시 말할줄 아는 눈을 가진 귀염둥이로, 가슴을 치며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던 열여섯살의 어린
양으로 변해버린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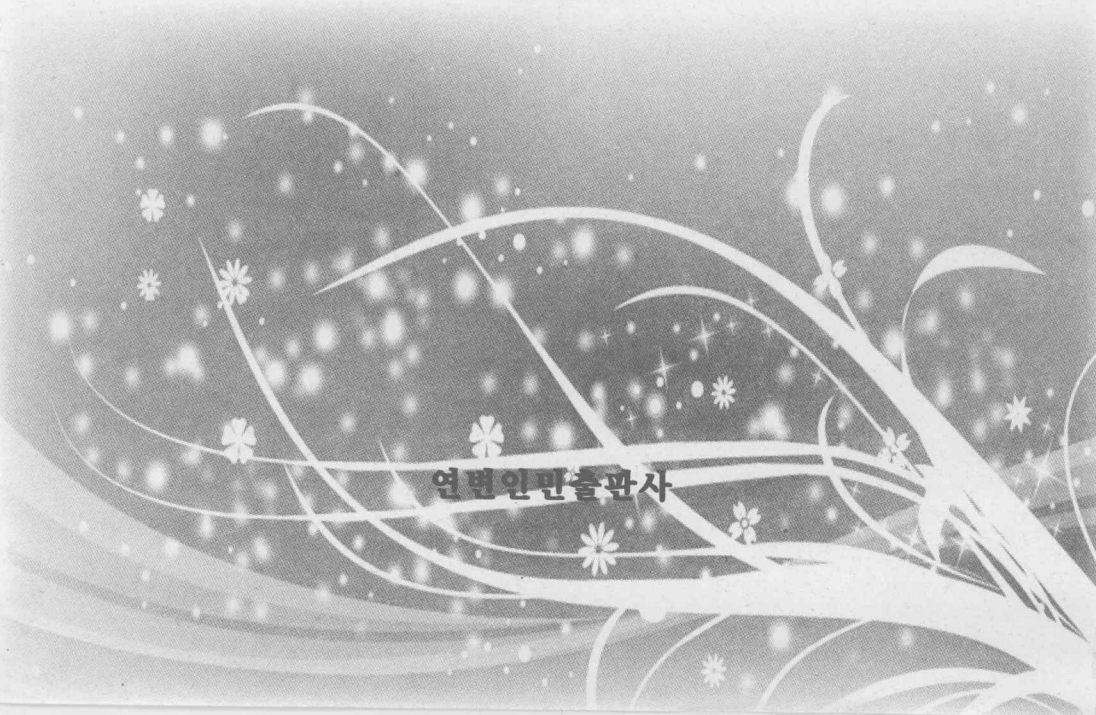
연변인민출판사



산문집

엄마의 별

최동일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영철

책임교정: 류춘매

기술설계: 장학봉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妈妈的星星: 朝鲜文 / 崔东日著. —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5

ISBN 978-7-5449-0284-7

I. 妈… II. 崔… III. 儿童文学—散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与(中国少数民族语言) IV. I 287.6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68302号

妈妈的星星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9.5

字数: 24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284-7

(民文)

版次: 2008年5月第1版

2008年5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이 밤도 별이 빛난다

이 밤도 별이 빛난다

김득만

나는 가끔 밤길을 걷다가도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 본다. 그렇게 밝지는 않아도 소리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수가 없다.

그런 즐거움을 요즘 나는 자주 느끼곤 한다. 산문집 《엄마의 별》에 머리글을 써달라는 최동일선생의 청탁을 받고 원고를 읽으면서 자주 어린 시절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던 그 잔잔한 감수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하냥 말수 적고 평범한 모습이지만 언제나 드높지 않고 착실하게 자기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최동일선생의 모습에서 밤하늘의 평범한 별을 떠올리게 된것때문인지 아니면 작자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단정한 산문집의 제목 《엄마의 별》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떠올리게 한것때문이지는 몰

라도 산문집을 읽는 내내 진한 감동을 느낀것은 사실이다.

1989년 6월 중순, 최동일선생은 중국인민해방군에서 퇴대하여 연변인민방송국에 배치를 받아왔다. 가담가담 그의 수필이나 동시 같은것을 본적이 있는지라 나는 그가 청소년프로편집을 맡으면 물이 못나게 할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후로 최동일선생과 나는 만 3년간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프로를 만들었다.

1993년 6월, 최동일선생은 연변텔레비존방송국 청소년부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그가 새로운 일터에서도 꽤기있는 텔레비존사업자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가는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지난해 4월, 나는 최동일선생이 연변작가협회 아동문학창작위원회 주임으로 당선되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5월에는 중국작가협회 로신문학원에 연수를 갔다는 소식도 접했다. 그리고 11월에는 연변인민출판사 문예부 주임으로 자리를 옮겼다는것도 알게 되었다. 그후로 중편소설 《선녀를 찾아주세요》, 《운무의 저쪽》, 중편실화 《엄마의 마늘밭》, 장편소설 《천사는 웃는다》를 들고 독자들앞에 나선 선생을 기쁘게 지켜보고있는데 또 산문집 《엄마의

별》을 내놓게 된것이다.

“글은 작자의 얼굴이요 마음”이라는 말이 있다. 산문집에 수록된 소박하고 잔잔한 감동이 흐르는 글들을 읽으며 나는 또 말은바 일터에서 열심히 일 해가는 최동일선생을 그려보았다.

작자는 “어머님전 상서”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그동안 적어놓은 저의 습작노트를 펼쳐보노라면 저에 대한 어머님의 바다 같은 사랑을 읽을수 있고 자식에 대한 어머님만의 뜨거운 사랑방식을 배울수 있으며 또 어머님을 가슴에 묻어두고 이 세상을 살아온 저의 작은 발자욱들도 찾아볼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어린 친구들에게 추천하고싶다. 이 책을 읽노라면 잔잔한 감동속에서 동년의 꿈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될것이고 그 꿈의 씨앗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를 알게 될것이다.

나는 이 책을 부모들에게도 추천하고싶다. 작자의 소박한 글줄사이에서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자세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나가야 하는가를 생각해볼수 있을것이다.

엄마의 별

나는 이 책을 모든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소박하고 진정이 흘러넘치는 최동일선생의 글을 읽노라면 우리는 소박한 삶이란 어떤것이고 또 어떤 자세로 세상앞에 나서야 하는가를 음미해볼수 있을 것이다.

이 밤도 별이 빛난다. 별이 빛나는 밤은 아름다운 밤이다. 최동일선생이 문학이라는 드넓은 별바다에서 하냥 소리없이 반짝이는 큰 별로 오래 빛나기를 기도해본다.

2008년 3월 26일

차 례

엄마의 구세목	3
시내물도 줄줄 세월도 줄줄	11
어른이 되고싶었던 그날 밤	16
강변에 심은 꿈	25
하얀 손수건	29
고 향 집	36
* .. * ... * ... * ... * ... *	
엄마의 별	47
* .. * ... * ... * ... * ... *	
엄마의 마늘밭	113
* .. * ... * ... * ... * ... *	
기회는 잡는것이다	167
로신문학원의 밤은 잠들줄을 모른다	170
고양이들이 이 밤도 설친다	174
있을 때 잘해	177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180
천년의 감동	183
정들면 집	185
소녀와 두개의 돌맹이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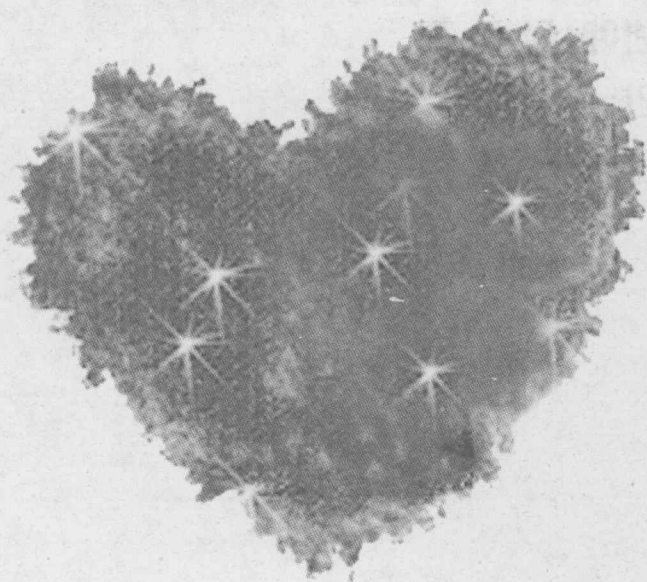
엄마의 별

고양이를 위해 울다	193
8월의 사색	197
로신문학원 이곳에 남긴것과 얻은것은...	199
원점,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	205
새 악장을 기다리며	208
아자, 힘내자!	211

* ... * ... * ... * ... * ... *

나는 보모	215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싶다	220
성이의 세계	224
달콤한 미소	228
소중한 만남	233
소중한 추억	239
그날의 그 순간	242
그날 밤 나는 마음이 편해졌다	248
당신의 냄새	254
후회는 없다	257
산내의 명물	269
작은 "지구촌"	276
서울의 하늘아 비라도 내리지 말아다오	283
어머님전 상서	291

엄마의 구세목



모래도 의인
엄마의 구세목
시내물도 졸졸 세월도 졸졸
어른이 되고싶었던 그날 밤
강변에 심은 꿈
아얀 손수건
고양집

엄마의 구세목

살아가노라면 가끔씩 흘러간 동년시절이 눈앞에 떠오를 때가 있다. 벌써 가슴속 밑자락 어딘가에서 곰삭을대로 곰삭았을 그 옛날의 작은 추억이지만 오늘에 와서 다시 꺼내 다듬어보노라면 그속에서 피어나는 동년의 향연때문에 가슴이 훈훈해난다.

그 시절, 나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옛적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그렇게도 좋았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며, 원숭이엉덩이가 빨갛게 된 이야기며, 곰이 백날동안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이야기며... 어떤 이야기는 너무도 여러번 들어서 엄마가 서두를 때면 내가 다음을 줄줄 내리 외을수 있었다.

“엄마, 다른 옛말이 없수? 새 옛말을 좀 해주.”

어느날 내가 낡은 옛말에 싫증을 느끼고 이렇

엄마의 별

게 투정을 하니 엄마는 “어디 보자!” 하시며 이윽
히나 새 옛말을 더듬어내시느라 고심을 하셨다.

“동이야, 그럼 우리 집 구새목에 깃든 옛말을
해줄가?”

엄마가 드디어 시무룩히 웃으시며 입을 열었다.

“우리 집 구새목에 무슨 옛말이 있는데? 엄마,
거짓말이지?”

내가 두눈을 울롱하게 치뜨며 쳐다보자 엄마는
짐짓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손사래를 쳤다.

“거짓말이라니? 애를 봐라. 우리 집 구새목옛말
을 하면 네가 진짜 재미있어할것 같은데, 싫으면
말구...”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면 연기가 밀밀 나오는
우리 집 구새목에 옛말이 있다구?)

나는 호기심이 동해서 엄마를 졸랐다.

엄마는 나의 재촉에 못이기는척하시며 천천히
우리집 구새목에 깃든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것은 옥수수들이 탁탁 물을 튕기며 오동통
영글어가던 음력 7월 중순계의 어느 점심녘이었다
고 한다.

엄마가 약수동 장사래밭에서 한창 조이밭김을
매고있는데 웃집에 사는 삼이네가 올라오며 엄마를

보고 장인에서 손님이 왔다고 기별을 넣었다.

“언제 내려왔어요?”

엄마가 호미자루로 밭고랑을 쪼고 서서 허리를 두드리며 삼이네를 건너다보고 물었다.

“내사 모르지. 방금 문앞을 지나며 불라니까 그 재인강할망구가 문앞에서 허둥거리고있습데.”

삼이네가 걸걸한 목소리로 보는듯이 일러주었다. 재인강할망구라면 엄마는 켜이는데가 있었다. 마을에서 60여리 떨어진 림장마을 장인골에 사는 사돈집할머닌데 정신이 드나들어서 가끔 엄마를 찾아오곤 했던것이다.

“알았소. 그럼 내려가봐야지.”

엄마는 김을 잡던 조이밭고랑을 절반이나 남겨둔채 호미를 걷어들고 밭머리를 향했다. 아침에 들어서면 저녁이나 돼야 끝을 보네마네하는 장사래밭이라 밭머리까지 나오는데도 한참이나 걸렸다. 만삭이 된 배가 아래로 당겨져서 여간만 힘든것이 아니었다. 엄마는 허이허이 밭걸음을 옮기면서 속구구를 해보았다. 해산일까지는 아직도 한 사흘 남은듯하니 래일까지 일을 하고 모레쯤에 간단한 준비를 한다면 분만에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되었던것이다.

엄마의 별

집에 도착해보니 아나나다를가 사돈할머니는
그새 못참겠다는듯 집마당을 주름잡으며 올리건고
내리 건고 분주히 돌아치고있었다.

“아매. 어떻게 오셨습둥?”

엄마가 알은체를 했다. 그제야 엄마를 발견한
사돈할머니는 썩하니 달려오며 엄마의 얼굴에 샷대
질을 해댔다.

“뭐 하다가 이제야 굴러 왔노? 내가 와 보지
않구 그래 집구석을 시름놓을수 있나? 너희들이 눈
에 밝혀서 내가 어떻게 그냥 살어? 아이~ 덩다,
빨라당 찬물이나 한바가지 떠올려라.”

“그러게 뭐 할라고 그렇게 분주히 뛰어다녔습
둥? 그늘에 앉아서 쉬시지.”

엄마가 사람 좋게 웃으시며 문을 열고 집안으
로 들어가 바가지에 찬물을 담아들고 나오셨다.

“할매, 집안이 탐탐하오께 저 비슬나무그늘에
앉아서 찬물 마시며 좀 쉬이소. 내가 제격 점심을
끓이겠습꾸마.”

엄마는 사돈할머니와 병글병글 수작을 하시며
구새목으로 검불을 안으려고 들어가셨다. 엄마는
머리를 가렸던 채갑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문지르고
는 검불을 안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불시에 배가

엄마의 구세목

아래로 당겨지는감이 들더니 동통이 오기 시작했다. 엄마는 “아이구~” 소리지르며 그 자리에 풍당 주저앉아버리고말았다. 엄마의 아우성에 놀란 사돈 할머니가 구세목으로 달려왔다. 때는 이미 양수가 터져서 흐르던 참이었다. 사돈할머니가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산파를 모셔왔을 때는 갓난애가 이미 밖으로 나와버린 뒤였다. 사돈할머니는 산파의 손에서 갓난애를 받아 집으로 들여가며 카랑카랑하게 웨치셨다.

“너희들 보거라, 내가 룡을 안았더라. 구세목에서 룡이 난다고 이 애가 바로 룡이 될 징조로다.”

여기까지 듣고난 나는 처음 듣는 구세목이야기가 무척이나 신비스럽게 생각되었다.

“엄마, 그 구세목에서 태어난 애가 누구유?”

“구세목에서 태어난 애가 호호호... 여기 있잖니?”

엄마가 나의 코끝을 꼭 누르며 웃으셨다. 나는 엄마의 말씀에 얼굴이 확 붉어졌다. 구세목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났다.

“아니지 엄마, 거짓말이지, 응? 그 애가 내가 아니지?”

엄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이야기를

엄마의 별

하셨다.

나는 갓 태어나서 젖만 먹으면 혼자서 놀았고 놀다가 지치면 또 젖을 빨고 잠을 자곤 했다. 구새목에서 이 세상을 찾을 때처럼 그렇게 쉽게 자라는 나를 하늘이 질투를 했던지 두돌이 금방 지나자 나의 온몸에 작은 물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집은 붉은 당콩알처럼 커지면서 성기를 빼고는 퍼지지 않은데가 없었다. 물집이 생기면서 차츰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나는 차츰 기력을 잃어가며 정신을 놓아버리기도 했다. 침개나 놓는다는 의사들을 찾아보았지만 뽕죽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보름정도 지나자 나는 완전히 사색이 되고말았다. 어느날 저녁 내가 두눈을 희번덕거리더니 입에 거품을 물며 머리를 외로 탈았다고 한다. 엄마는 울면서 마을의 의사를 불러왔다. 의사가 나의 눈까풀을 번져보더니 설레설레 머리를 저으셨다.

엄마는 가슴을 뜯으며 나를 보자기에 싸서 구새목에 내다놓으셨다.

엄마는 열네살 나던 해에 일곱살이나 이상인 아버지에게로 시집을 왔었다. 이붓어머니의 손에서 이붓형과 함께 재지게 가난하게 사는 아버지지만 얼굴이 조각을 한듯 잘생기고 성품 또한 도도해서